



WTO가입 비준동의안과 관련법안 통과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현안이었던 WTO가입 비준 동의안이 지난 15일 국회외무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이와관련된 축산법,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비롯 9개 축산관련법안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통과, 17일 열린 본회에서 WTO와 관련한 모든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축산법의 주요 골자는 종축 등의 수출입 추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시장 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을 수입코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또 가격안정 필요시 농림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자가 지정 축산물의 구매·비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 중 피해가 적은 돼지단독 등 5개 질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그리고 전파력이나 피해정도가 큰 수포성구내염 등 3개

질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추가됐다.

사료관리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배합사료와 보조사료의 제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며 사료제조업의 시설변경도 신고제로 완화된다.

한편 낙농진흥법은 WTO와 관련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및 전면 개각

제171회 임시국회가 지난 23일 열려 재정경제원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10개 안건을 처리한 후 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정부조직 개편내용을 보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축소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축소통합하는 한편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의 축산국도 초지사료과가 폐지, 축산경영과 등 4개 과로 축소운영되게 됐다(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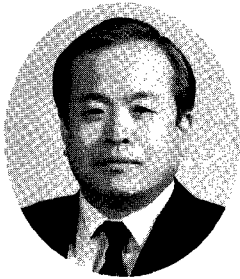
23일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동시에 조직개편에 따른 18부처의 전면적인 개각을 실시, 국정지표를 세계화를 추진키 위한 이번개각에서 농림수산부 최인기 장관은 유임됨으로써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사업들이 업무의 공백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78페이지 참조.)

농림수산부 인사단행(차관, 국장,

과장)

정부는 지난 23일 대대적인 개각조치 이후 26일에 차관급인사 22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농림수산부차관에는 박상우 농림수산부 1차관보가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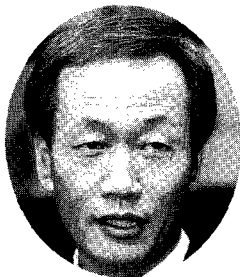


△박상우 차관

한편 축산국내 축산국장 및 과장의 인사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축산국장 : 안덕수(전 검사관)
- 축정과장 : 김달중(전 축산물 유통과장)
- 유통과장 : 최상태(전 FAO과견 근무)
- 경영과장 : 김남철(전 초지사료 과장)
- 위생과장 : 배상호(전 동물검역소)

한농연 6대 회장에 엄홍우씨 당선



△엄홍우

(사)한국농어민후계지증양회연합회는 지난 19일 대전 우성연수원에서 '94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6대 회장에 엄홍우 현 한농연 수석 부회장을 선출했다.

이와함께 부회장에 박용희, 박종부, 황창주 씨를, 감사에 김강현, 송선준, 송병권씨를 선출하는 등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였다.

축산단지 2백10개소, 양축계열화 53개소 2004년까지 조성키로

농림수산부는 생산성 향상도모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04년까지 축산단지 2백10개소, 양축계열화 53개소를 조성키로 확정했다.

이와함께 사료 및 기자재의 공동구매, 생산물의 공동구매, 공동방역 등 협업체제의 구축과 함께 분뇨처리시설의 공동이용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키 위해 2004년까지 축산단지를 2백10개소 확대 조성키로 했다.

또 가축, 사료, 사양기술 등을 제공하고 수집·가공·판매하는 통합경영으로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가축계열화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는 2004년까지 53개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4백50평까지 비농민 한계농지 소유 확대키로

농림수산부는 지난 12일 도시거주자 등 비농민도 내년 7월부터 영농여건이 나쁜 한계농지에 한해 4백50평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영농여건이 떨어지는 지역중 도시사가 지정한 한계농지 정비지구 면적을 비농민의 경우 2백평 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4백50평까지 확대, 취득해 과수, 원예, 축산, 관광농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쟁력제고 위해 5조 9천여억원 투입

정부는 축산업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오는 2001년까지 한우분야에 2조4천6백69억원, 양돈분야에 1조4천7백85억원, 양계분야에 6천억6천3백만원 등 모두 5조9천1백20억6천3백만원을 투자 용자키로 했다.

위생부문과 사육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양계분야를 살펴보면 경쟁력제고를 위해 3천7백16억4천만원, 양계단지 조성을 위해 7백 60억원, 계열화 부문에 3백15억원, 유통시설부문에 1천1백87억3천만원, 개량사업 부문에 21억9천3백만원이 투·용자키로 했다.

농어촌 관광휴양지 95개소 개발

농림수산부는 지난 9일 농어촌의 보존자원인 자연환경과 농업을 연계해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해 내년에 모두 2백36억원을 지원, 관광농원 60개소와 휴양단지 5개소, 농어촌 민박마을 30개소 등 모두 95개소에서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미 조성돼 있거나 조성중인 휴양시설을 포함해 '95년엔 관광농원은 3백6개소, 휴양단지는 15개소, 농어촌 민박마을은 1백

15개소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 선정은 농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군에 신청을 하면 시·군의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친뒤 시장, 군수가 확정하게 된다.

인분해 효소 세계 최초로 개발

닭, 돼지, 양어가 체내에서 소화 흡수치 못해 대부분을 배설해온 인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파이테이즈 유전자가 세계최초로 국내연구진에 의해 개발돼 생산비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게 됐다.

서울대 최윤재 교수와 축산시험장 이상철 박사 연구팀은 닭, 돼지 사료에 이용되는 불용성 형태의 피린타인이 20~30%만 이용되고 나머지는 배설돼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온 피린타인을 분해할 수 있는 파이테이즈 효소를 토양중 박테리아로부터 분리·이용하는데 성공했다.

농안기금 내년 1조2천억 투입

정부는 내년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규모를 1조2천8백50억원으로 올해 보다 9백억원이 증액,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난 16일 농림수산부가 확정된 내년도 농안기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비축 및 출하조정 등 가격안정사업에 7천9백2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유통시설의 확충 개선 등 구조개선에 4천5백6억원, 비축시설 등 사업조성과 차입금 상환에 4백18억원

등이 각각 쓰이게 된다.(표 참조)

표. '95 농안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년	'95년	증감
◇가격안정사업	782,475	792,580	10,105
○정부가격안정	448,251	439,456	△8,795
-비축사업	435,451	430,856	△4,595
-출하조정사업	12,800	8,600	△4,200
○민간가격안정	334,224	353,124	18,900
-비축수매지원	191,277	211,733	20,456
-수출수매지원	94,654	101,264	6,610
-생산자(단체)출하조정	48,293	40,127	△8,166
◇유통구조개선	372,703	450,605	77,902
○유통시설확충 및 개선	26,124	74,430	48,306
-농수산물유통시설	25,857	74,430	48,573
-농수산물유통장비	267	-	△267
○산지 및 소비자유통개선	339,558	369,134	29,576
-산지유통개선	208,255	230,266	22,011
-소비자유통개선	131,303	138,868	7,565
○유통조성	7,021	7,041	20
-유통사업지원	5,000	5,000	-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2,021	2,041	20
◇사업조정 및 차입금상환	39,822	41,815	1,993
계	1,195,000	1,285,000	90,000

농어촌 의료기술지원단 설치

농어촌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한국의료관리연구원에 농어촌의료기술지원단이 설치된다.

지난 5일 보사부는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키 위해 한국의료관리연구원에 농어촌의료기술지원단을 설치하고 오는 '98년까지 한국의료관리연구원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한시적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의료개선을 위한 기술지

원단 설치운영 및 운영규정」을 연내에 제정하고 내년부터 공식활동에 들어간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기준을 발표

국세청은 '94년분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 신고지침을 다음과 같이 인상 발표하였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기준을 인상함

(단위 : %)

업 종	지 역 별 인 상 률					
	서 울 직할시	50만명 이상시	30만명 이상시	10만명 이상시	기타 시	군
축 산 업						
양 계	8	8	8	8	8	8
양 돈	11	11	11	11	11	11
육 우	10	10	10	10	10	10
낙 농	2	2	2	2	2	2
사 승	17	17	17	17	17	17
기 타	8	8	8	8	8	8
임 업	0	0	0	0	0	0
어 업						
일반어업	7	7	7	7	7	7
양 식 업	11	11	11	11	11	11
광 업						
소금채취	30	30	30	30	30	30
소 매						
곡 물	16.8	15.6	14.4	12	10.8	8.4
청 과	28	26	24	20	18	14
생 화	14	13	12	10	9	7
수 산 물	25.2	23.4	21.6	18	16.2	12.6
축 산 물	18.2	16.9	15.6	13	11.7	9.1
서 적	28	26	24	20	18	14
기 타	14	13	12	10	9	7
운수보관	30	30	30	30	30	30

※ 경기지역 10만명미만시는 10만명이상시로 간주

농어촌진흥대상 시상

농어촌진흥공사(사장 조홍래)는 지난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 양창식 의원을 비롯 학계, 언론계, 유관기관 및 단체, 농어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농어촌진흥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농어민의 지위향상과 선진농어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농어촌진흥대상은 한달여의 심사를 걸쳐 각 부문에서의 공로가 인정된 8명을 선정, 시상하였다. 영예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생산기반부문:

허 신((전)서산농지개량조합장)

이천복(경인엔지니어링 대표)

· 소득증대부문: 조평희(진천군의회 의원)

· 첨단농업부문: 김문기(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 환경개선부문: 전경배(한양대 공대 교수)

· 특별부문: 정장섭(농업기술자연합회장)

· 연구개발부문:

조규대(부산수산대학교 교수)

안재숙(한국농지개발연구소 이사장)

제 4 회 육류수출활성화 전략개발 워크숍 개최

한국농어민신문이 주최하고 한국육류수출협회가 주관한 제4회 육류수출활성화 전략개발 워크숍이 지난 16일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관련인들의 깊은 관심속에 개최되었다.

“WTO체제하의 한국축산업 생존전략”이란 주제로 김달중 축산유통과장의 기조연설과 한



국육류수출협회 김강식 회장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육류 해외시장개척 전략이란 강연이 있었다.

이외함께 양돈분야에서는 양돈산업 생존전략과 '95돼지고기 가격전망, 합리적인 돼지고기 가격전망, 합리적인 돼지고기 수출단지 운영과 과제, 돈육수출현장의 문제점과 해결과제가 각각 발표되었으며 양계분야에서는 나원주(화인코리아)사장이 닭고기 수출가능성과 해결과제를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또한 정찬길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는데 양계분야는 김홍국(하림)사장이 참석하여 생산성과 유통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축산경영 지도사업공청회 개최

최진호연구소(대표 최진호) 주최로 지난 9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 개최된 “축산경영 지도사업의 효과적인 방법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양돈사양가의 입장에서 본 양돈경영기법, 축산업의 경영합리화, 양돈

